

	관계부처 합동	보도해명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19. 5. 17.(금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박재진 (044-215-4610)	담당자	정지운 사무관 (044-215-4612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 서경춘 (02-2110-2390)		이호준 사무관 (02-2110-2392)
	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선기 (044-203-4390)		형건우 사무관 (044-203-4395)
	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임숙영 (044-202-2901)		방영식 사무관 (044-202-2903)
	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이남희 (043-719-3302)		박지혜 사무관 (043-719-3310)

2019. 5. 17.(금) 서울경제(가판) 「[단독] 바이오 의약품 허가 기간 절반 줄인다」 기사 관련

<언론 보도내용>

- ☐ '19. 5. 17.(금) 서울경제(가판)는 「[단독] 바이오 의약품 허가 기간 절반 줄인다」 제하 기사에서
- “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‘제2의 반도체’로 키우기 위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바이오 의약품 허가·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.”라고 보도하면서
 - “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‘바이오 헬스 중점육성을 위한 혁신전략’이 다음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”이고,

- “△연내 2조원 가량 연구개발 투자계획 △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 완화 △투자 후 자금회수과정 개선 △신성장 R&D 세액공제 대상 기술확대 △오송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내용이 추진된다”고 보도

< 정부 입장 >

- ☐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중이나, 구체적인 발표 일정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